교회성장의 성경적 원리*
- 엡 4:11-16을 중심으로 -
Biblical Principles of Church Growth

임 영 효**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목 차

1. 서론 | 19
2. 교회성장의 방편 : 말씀사역자들(엡4:11) | 21
   2.1. 사도들과 선지자들 | 22
   2.2. 복음전하는 자들 | 24
   2.3. 목사들과 교사들 | 26
3. 교회성장의 과정(엡 4:11-12) | 30
   3.1. 말씀사역자(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교사)들이 성도를 온전케 함 | 30
   3.2.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함 | 35
   3.3.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 | 38
4. 교회성장의 목표(엡 4:13-15) | 40
   4.1. 영적 통일성의 보존 | 41
   4.2. 영적 성숙의 증진 | 44
5. 교회성장의 결과(엡 4:14-15) | 47
   5.1. 믿음(건전한 교리)에 굳게 서게 됨 | 47
   5.2. 진정한 사랑의 증거 | 51
6. 교회성장의 원천과 환경(엡 4:16) | 54
7. 결론 | 59

요약

교회성장의 성경적 원리
– 엡 4:11-16을 중심으로 –

본고의 목적은 에베소서 4장 11-16절에 근거하여 교회성장의 성경적 원리들, 즉 교회성장의 방편과 교회성장의 과정, 교회성장의 목표와 결과, 그리고 교회성장의 원천과 환경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주님의 교회가 정체내지 퇴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들려지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의 계획의 산물이 아니라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친히 설립하신 영적 유기체로 독특한 기능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게 되어지는가는 모든 교회사역자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중요한 이슈로서 지금까지 많은 이론과 방법론들이 제시되어져 왔다. 그러나 그 동안 제시되어져 왔던

교회성장의 원리와 방법론들이 확고하게 성경의 기초를 가지지 못하고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주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교회성장의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 체계화시켜 나가는 것의 시급함을 인식하면서 본고에서는 이 에베소서의 본문 가운데 가장 간명한 형태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은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으로 양육하거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역자(복음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장해 나가고,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로 전하고 먹이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 핵심 사역자들은 교회의 설립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로서 이들이 교회 구성원들을 온전케 하므로, 지체들로 부름받은 구성원들이 받은바 은사를 따라 봉사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게 되어지고, 그 결과 주님의

요약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 나가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에베소서 4장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러한 봉사의 사역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은사를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의 표식은 모든 구성원들이 받은 은사와 능력의 분량을 따라 능동적으로 사역에 참여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마케팅 이론의 영향으로 교회 구성원을 단순히 소비자 혹은 고객으로 대하고자 하는 사상은 지극히 위험스럽고 왜곡된 생각임을 밝혀주고 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대신하여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잘 하느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성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얼마나 잘 구비시켜 가고 있는가에 의해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에베소서 4장은 교회성장의 목표가 진리 안에서 교회의 영적 하나 됨과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성원들의 영적 성장에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 목표가 성취되어질 때 그 결과로서 믿음에 견고히 서게 되어지고 사랑의 증거를 통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교회의 구성원 각자가 충만하게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충만하게 성장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또한 교회를 떠나서는 개인의 온전한 성장도 일어날 수 없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왜냐하면 몸의 구성원으로서 각 지체는 서로에게 속하여 있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성장의 원천이자 원동력은 바로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교회 사역자들과 구성원들 모두는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하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계획대로의 교회성장이 이루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교회성장의 환경이 반드시 조성되어져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엡 3:18-19), 비로소 교회는 생기와 활력을 얻어서 이 사랑의 통로를 통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요약

부여받은 은사가 막힘없이 흘러내림으로 몸된 교회는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면서 매력적인 모습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해 나가게 될 것이며 주님의 계획대로 교회로서의 기능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에베소서가 보여주는 교회성장은 질적 성장의 결과로서 양적 성장이 주어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 사역자들은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이를 무시하고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교회 혹은 건강한 교회로서 성장해 갈 수 없음을 인식하여 무엇보다도 성도를 온전케 하는 질적 성장에 사역의 최우선 순위를 둘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이 영적 성장을 목적으로 사역하면, 수적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 본 논문은 2011년도 고신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 고신대학교 및 동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M. Div.)학위 취득. 미국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약학으로 신학석사(Th. M.), 선교학 전공으로 선교학 박사(D. Miss.), "사도행전에서의 선교와 교회성장의 기초에 관한 선교학적 연구"로 선교신학을 전공하여 철학박사(Ph. D.)학위 수여받음. 현재 고신대학교 신학과에서 실천신학 및 선교학 담당교수인 동시에 고신대학교 선교목회 대학원에서 교회성장학 주임교수로 사역하고 있으며 개혁주의 교회성장학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yhim@kosin.ac.kr

Biblical Principles of Church Growth

- based on Ephesians 4:11-16 -

주요어

교회성장, 은사, 말씀사역자, 봉사, 그리스도의 몸, 믿음, 지식, 영적 성숙, 사랑, 질적 성장, 양적 성장, 그리스도를 닮음

Abstract

Biblical Principles of Church Growth
- based on Ephesians 4:11-16 -

Prof. Dr. Young Hyo I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biblical principles of church growth based on Ephesians 4:11-16. That is, this paper deals with the means of church growth, the process of church growth, the goals and results of church growth, and the source and atmosphere of church growth.

Although there were voices of worry about stagnation and retrogression of the Lord's church, the church is not the production of human plan, but the organic body that the Lord himself built. Thus, the church has the unique function and task. The past decade or so has witnessed the development of teaching and discussing principles and methods for church growth. Many of the efforts are helpful, but only to the extent they ar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the Bible teaches.

It is God's plan for the evangelists and pastor-teachers to equip church members by the procedure set forth in Ephesians 4: 12-16. Especially, the chapter 4 of Ephesians places great

emphasis on the evangelists and pastor-teachers because of their roles, that is, evangelizing and teaching. These core ministers prepare God's people for works of service, so that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up.

Above all things, Ephesians 4 emphasizes that the spiritual leaders in church should make all the members of church aware of their calling for works of service. That is, a mark of healthy church is that all the members of church are participating in the works of service according to their spiritual gifts. This principle shows that considering church members customers or consumers according to the theory of marketing is very dangerous and perversive. So, the spiritual leaders in church should be judged not by their own works instead of church members, but by their equipping works for church members.

Also, Ephesians 4 indicates that the goals of church growth are church members' spiritual oneness and spiritual growth which imitates Christ, the head of church. When these goals are accomplished, as the result of them the church members stand firm in faith, spread the Gospel, and produce the fruits of evangelism. To reach this step, every church member should grow in truth and love. Moreover, Ephesians 4 intimates that without church full growth of individual cannot be made because every member of church belongs to each other, gives help to each other and needs each other. In order to grow according to the Lord's plan, love as the atmosphere of church growth

should be given because the church is a spiritual organism which grows in God's love.

In conclusion, Ephesians 4 shows that the quantitative growth is given as a result of spiritual growth. Therefore, today's church ministers should not seek the quantitative growth without focussing on the qualitative growth. Thus, they should put the top priority on qualitative growth of equipping the church members, so that the church may be a healthy church.

Keywords | church growth, gift, word minister, service, the body of Christ, faith, knowledge, spiritual growth, love, qualitative growth, quantitative growth, the imitation of Christ.

1. 서론(Introduction)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주님의 교회가 정체내지 퇴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들려지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의 계획의 산물이 아니라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친히 설립하신 영적 유기체로 독특한 기능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게 되어지는가는 모든 교회사역자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중요한 이슈로서 지금까지 많은 이론과 방법론들이 제시되어져 왔다. 그러나 그 동안 제시되어져 왔던 교회성장의 원리와 방법론들이 확고하게 성경의 기초를 가지지 못하고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주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오늘날의 상황에 대하여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교회의 담임목사이며 마스터즈 신학대학의 학장인 존 맥아더(John F. MacArthur)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약 지난 10년의 기간은 소위 교회성장 운동의 발전을 증거해 주고 있다. 세미나들과 회의들, 책들, 프로그램들, 그리고 특별한 조직들이 전적으로 교회성장을 위한 원리와 방법들을 가르치고 논의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의 상당한 부분은 도움이 되지만,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2-16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원리들과 일치되어지는 한도 내에서만 유용한 것들이다. 이 본문 가운데 가장 간명한 형태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세움은 그의 계획에 일치해야만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인간적인 방편들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경쟁하는 것을 의미한다.[1]

특히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성장의 원리를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하여 주경 신학자 앤드류 링컨(Andrew T. Lincoln)은 "에베소서 4:1-16은 주로 교회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사실 이 서신의 어떤 다른 부분도 교회의 삶과 목적에 대해 이만큼 직접적이고 집중적으로 할애되어 있지 않다. ... 교회는 그 분의 충만이고(13절), 그 분의 몸이다(12절).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시작과 끝이 되시며 그 성장의 원천(source)과 목표(goal)가 되신다"라고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2] 미국 카바넌트 신학대학원(Covenant Theological Seminary)의 총장인 브라이언 채플(Bryan Chapell)도 에베소서 4장 1-16절을 "교회를 위한 주인의 안내서"(Owner's Manual for the Church)라고 말하고 있다.[3]

따라서 교회성장의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 체계화시켜 나가는 것의 시급함을 인식하면서 본고에서는 에베소서 4장 11-16절을 중심으로 교회성장의 중요한 원리들, 즉 교회성장의 방편과 교회성장의 과정, 교회성장의 목표와 결과, 그리고 교회성장의 원천과 환경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John F. MacArthur,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Ephesians,* (Chicago: Moody Press, 1986), pp. 151-152.

2) Andrew T. Lincoln, *Ephesians,*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42., (Dallas,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90), pp. 267-8.

3) Bryan Chapell, *Ephesians,* Reformed Expository Commentary, (New Jersey: P&R Publishing, 2009), p. 181.

2. 교회성장의 방편(The Means of Church Growth): 말씀사역자들(엡4:11)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전체에게도 선물을 주셨는데,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엡 4:11). 앞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목적이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함인 것을 언급한 이후에 11절에서 특별한 말씀 사역자들을 주셨다고 한 것은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이러한 사역자들을 주셨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주경신학자 앤드류 링컨(Andrew T. Lincol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에베소서 저자의 관점에서 승귀하신 그리스도의 선물은 특별한 사람들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또한 이러한 사역자들은 통일성과 성숙이라는 교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수단들이다. 몸의 마디들처럼, 그들은 교회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면서도 결합력 있는 역할을 한다. 그들의 사역은 단순히 임의적이거나 우연적인 기능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 교회의 삶을 위해 본질적인 직분들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직분들의 특징은 하나되게 하고, 세우고, 튼튼하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직무라고 할 수 있다.[4]

미국의 강해 설교자인 존 맥아더(John F. MacArthur)는 엡 4:11의 사도들과

4) Andrew T. Lincoln, op. cit., p. 268.

선지자들은 엄격히 신약시대를 위해서 주어진 것인 반면에 전도자들과 목사-교사들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계속적인 사역을 위하여 주어진 것임을 언급하면서, 이 전도자들과 목사-교사들과 같은 은사를 받은 두 그룹들이 엡 4장 12-16절까지에 언급되어지는 대로 주님의 교회를 구비하고, 세우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말하고 있다.[5)]

2.1 사도들과 선지자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몸된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씀하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사역이 교회건설의 중요한 기초를 형성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고전 12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라고 가장 먼저 언급하므로 이들 사역자들을 교회에 주심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연대기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 진다.

"처음 두 직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로서 3가지 중요한 책임들이 주어졌다. 1) 교회의 기초를 놓는 것(엡 2:20), 2)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아 선포하는 것(행 11:28, 21:10-11, 엡 3:5), 3) 표적들과 이적들과 기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을 제시하는 것이다(고후 12:12, 행 8:6-7, 히 2:3-4)."[6)]

주님께로부터 특별히 부름을 받았고 오순절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사도들은 하나님의 최종 계시를 기록하므로 교회의 기초가 놓여지게 되었는데, 그 자격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야 하고 주님에게서 직접 복음을 전수받

5) John F. MacArthur, op. cit., p. 152.
6) Ibid., p. 141.

은 자로서 주님에 의해 보냄을 받았어야 했다. 선지자들은 아가보의 경우에서 처럼, 때때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알리기도 했지만(행 11:28, 21:11-12), 그들은 예언자(fore-teller)라기 보다는 오히려 선포자(forth-tellers)로서 초기 교회를 세우고 강화시켜 나가는 일에 크게 쓰임 받았던 직분이었다(행 15:32, 고전 14:29-32).[7] 사도적 메시지가 일반적이고 교리적이었다면,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개인적이고 실제적이었다.[8]

이 두 직분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 탄생 전 400년경에 구약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사라졌던 것처럼, 신약성경의 완성과 더불어 중단되었다.[9]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교회의 기초가 놓여지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사역은 종결되었으며, 그 기초가 세워진 오늘날에는 복음전하는 자와 목사-교사들이 그 기초위에 건물을 세워나가는 사역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다. F.F. 브루스(Bruce)가 언급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한 직위로서의 사도가 사도시대 이후에까지 계속되지 못했지만 그들이 수행한 여러 가지 기능들은 그들이 사라졌어도 소멸되지 않고 다른 이들, 특히 전도자들과 목사들과 교사들에 의해서 계속 수행되고 있다."[10]

본 서신이 기록되어졌던 신약시대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사역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두 직분이 다른 직분들(복음전하는 자들과 목사-교사들)로 대체되었다는 언급이 없지만, 앞서 기록된 두 직분이 교회를 계속 섬기는 가운데, 복음전하는 자들과 목사들과 교사들이 첫 세대인

---

7) Warren W. Wiersbe, *Be Daring*, (Wheaton, Illinois: Victor Books, 1988), p. 10. Francis Foulkes, *The Epistle of Paul to the Ephesians,* (London: The Tyndale Press, 1963), p. 118.
8) John F. MacArthur, op. cit., p. 142.
9) Ibid.
10) F. F. Bruce, *The Epistles to the Colossians, to Philemon, and to the Ephesians,* (Grand Rapids: Eerdmans, 1984), pp. 346-347.

이들로부터 사역의 바턴을 이어받게 되어졌던 것이다.[11]

2.2 복음전하는 자들

복음전하는 자들과 목사들과 교사들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지금 현재 사역 중에 있는 직분들이다. 복음전하는 자들은 여러 지역으로 여행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이들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본문과 사도행전 21장 8절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직분인데, 빌립에게 이 칭호가 주어졌으며 사도행전 8장 4-40절까지 빌립의 구체적인 사역이 소개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사역을 하도록 요청되어지고 있다.

위의 세 경우를 제외하고서 신약성경에서 이 직분자체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지만, 이 직분의 활발하면서도 광범위한 사역이 있었다는 사실은 54회 사용되고 있는 "복음을 선포하다"(유앙겔리조)는 동사와 76회 사용되고 있는 "복음"(유앙겔리온)이라는 명사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12]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첫 번째 복음전하는 자였음을 밝히고 있으며(갈 3:8), 예수님 탄생 때에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고(눅 2:10), 예수님 자신이 복음을 전하셨으며(마 4:23, 9:35, 눅 4:43, 8:1, 20:1, 엡 2:17), 사도들과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눅 9:6, 행 6:42, 8:4)이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신약성경의 복음전하는 자들은 사도들처럼,

11) John F. MacArthur, op. cit., p. 142.
12) Ibid.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으로 가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인도했던 교회개척자들이었고 선교사들이었다.[13] 그들은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들이 믿음을 나눌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일을 도왔으며, 그 후에 새로운 장소로 옮겨가서 사역하였다.

이 복음전하는 자들은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들을 접촉하도록 교회에 주어진 직분으로서 오늘날의 교회는 이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고 모문화권에서나 타 문화권에서 이런 사역자들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복음전하는 자들과 목사-교사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사역하므로 잃어버린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님의 교회의 성숙한 구성원들로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

2.3 목사들과 교사들

목사의 일반적인 의미는 목자로서 양떼들을 돌보고 보호하며 이끄는 사역을 수행하는 직분이다. 교사는 가르침을 통하여 양떼들을 먹이는 것이 그 주된 기능으로 신약에서 59회 나타나며 바울 서신들에서 7회 나타나고 있다(롬 2:20, 고전 12:28,29, 엡 4:11, 딤전 2:7, 딤후 1:11, 4:3). 따라서 이 두 직분은 그 기능이 중복되는 것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확연히 구분하기가 어렵다. 존 맥아더(John F. MacArthur)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교사는 목사의 주된 기능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가르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사역이지만(고전 12:28), 목사와 교사는 교회

13) A. Skenvington Wood, *Ephesians*,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11., (Grand Rapids: Zondervan Pub., 1978), p. 58.

안에서 리더십의 한 직분으로 가장 잘 이해되어 진다. 흔히 본문의 '목사와 교사'라는 언급 중 '와'(그리고)라는 단어는 '즉'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져서 교사는 목사의 주된 직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지고 있다.[14] 본문에서는 이런 의미가 확실하게 입증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preaching and teaching)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고 이 두 직분을 하나로 연결하여 표현해 주고 있다. 이것은 가르치는 목자(the teaching shepherd)를 의미하고 있다.[15]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는 언급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사역이 목사와 교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더 나아가, 신약성경에서 목사의 직분은 장로와 감독의 직분과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직분을 달리 표현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언급되어있는 감독의 자격과 디도서에 기록된 장로의 자격을 언급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감독과 장로를 동일한 직분으로 설명하고 있다(딛 1:5,7). 또한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장로들(elders)과 목사들

14) 이 문제에 대하여 해롤드 헤너(Harold W. Hoehner)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엡 2장 20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의 관사가 있는 것에서 보여진 것처럼, 비록 두개의 복수 명사들을 위하여 사용된 하나의 관사가 반드시 동일한 것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 구별된 [두]그룹들이 고려중인 목적을 위해 하나로 여겨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 따라서 그 둘 사이에는 구별이 있지만 그 구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 모든 목사들은 교사들이어야 하지만 모든 교사들은 목사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에 목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구별된 것으로 보여 진다." *Ephesians: An Exegetical Commentar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2),, pp. 543-545. 프랭크 틸만(Frank Thielman)도 "바울은 목사들과 교사들이 전적으로 동일한 그룹은 아니지만 중복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려고 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Ephesian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0), p. 275.

15) John F. MacArthur, op. cit., p. 143.

(shepherds)과 감독들(overseers)이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면서, 장로들이 목양할 때 좋은 감독들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사도행전 20장 17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행한 고별설교 가운데서 세 용어를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17절에서 "장로들(elders)"이라고 호칭한 반면 28절에서는 그들을 "감독자들"(overseers)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고 언급하였는데 여기에 "치게 하셨다"는 단어가 "목사"(포이멘)라는 명사의 부정사형인 "포이마이네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장로라는 명칭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고, 감독이라는 명칭은 그가 행하는 일에 대한 언급이며, 목사는 사역의 자세와 특징을 말해주는 명칭으로 이 세 용어들은 동일한 교회 지도자에 대하여 사용되어지는 명칭이다.[16]

신약성경의 감독의 직분은 5회 사용되고 있는데, 양떼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양육하면서(행 20:28), 특히 가르치는 것에 책임이 있었다(딤전 3:2, 딛 1:9). "목자" 혹은 "목사"라고 번역되고 있는 "포이멘"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18회 사용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만 목사라고 번역되어 있다. 따라서 "목사라는 용어는 목자라는 의미 가운데 지도자의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지만, 돌보고 먹이는 목회적 역할을 보다 강조하고 있으며 지도자의 자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17] 그러므로 목사로서 온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목자의 돌보는 마음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사도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을 때, 목사-교사의 직분이 지 교회 지도력의

16) Ibid., p. 144.
17) Ibid., p. 145.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이 직분은 엄청난 분량의 책임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은 교회전체에 대한 돌봄과 영의 양식을 먹이는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인도와 보호를 책임지게 되었다."[18]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이 주된 사역이 되어졌고(딤전 5:17), 교리적인 이슈들을 결정하고 회중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책임이 주어지게 되었다.

"디모데전서 3장 2-7절에서 감독의 영적 자격들을 열거하는 가운데, 감독의 구체적인 기능과 관련해서 오직 한 가지 자격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르치기를 잘 하며'(2절)라는 것이었고 나머지 자격들은 개인적인 인격에 관한 것임을 볼 수 있다. 디도서 1장 7-9절 역시 감독의 자격으로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9절)고 교사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위협이 이미 현실적인 것으로 대두되어졌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의 핵심자격이 바른 교훈(sound doctrine: 바른 교리)을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19]

디도서 1장 9절의 "권면하고"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로서 설득(행 2:14, 14:22, 딛 1:9), 호소(고후 8:17), 위로(살전 2:11), 격려(살전 4:1), 그리고 중요한 교리에 대한 끈기있는 반복(딤후 4:2)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20]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는 목사(장로)는 중보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으며, 사도행전 20장 28-29절에서는 목자의 기능 즉,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흉악한 이리로부터 보호하는 두

18) Ibid., p. 147.
19) Ibid., p. 148.
20) Ibid.

가지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특별한 말씀사역자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 감독으로서 가르치는 목사는 교회정책을 결정하고(행 15:22), 감독하며(행 20:28), 다른 사람들을 안수하고(딤전 4:14), 다스리고, 가르치고, 설교하고(딤전 5:17), 권면하고, 책망하며(딛 1:9), 교회 구성원들을 위한 본을 보이고(벧전 5:1-3), 저술 등 다른 사역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요케 하며, 교회 구성원들을 구비시키고, 성도들이 주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양육하므로 교회의 영적 통일성을 보존하고 교회의 성숙을 증진시키는 자들이다. 그래서 영국의 강해설교자 존 스토트(John R. W. Stott)목사는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소유한 교사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다. ...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가르침이다. 가장 필요한 사람은 교사이다"라고 말하고 있다.[21]

3. 교회성장의 과정(The Process of Church Growth) (엡 4:11-12)

3.1 말씀사역자(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교사)들이 성도를 온전케 함

복음 전하는 자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이해시키며 예수

21) John R. W. Stott, *God's New Society: The Message of Ephesians*,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79), p. 164.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인도하므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지역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역의 시작이다.

목사 즉 교사들의 사역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적으로 순종하게 하므로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주님의 본받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며 경건의 모델이 되어지는 것이다(고전 4:16, 11:1, 빌 3:17, 골 1:28-29, 살전 1:5, 벧전 5:3).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져서 적합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원래 이 단어는 의학적 용어로서 부러진 뼈를 바로 잡고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어 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22] 신약성경에서는 그물을 수리하거나(마 4:21), 범죄한 자를 바로 잡을 때(갈 6:1) 온전히 연합하는 것(고전 1:10), 준비된 것(롬 9:22) 등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회복(restoration, reconciliation: 갈 6:1, 고전 1:10, 벧전 5:10), 복구(resetting: 마 4:21), 보완(supplement: 살전 3:10, 히 13:21), 준비(preparation: 롬 9:22), 훈련(training: 눅 6:40)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개념은 "그 일이나 그 사람을 바로 그 있어야 할 상태로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23]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라고 역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6가지 기본 도구들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말씀(요 15:3, 행 20:32, 딤후 3:16-17, 벧전 2:2, 요일 2:5). 2) 기도(요 16:24, 행 2:1-4, 4:24-33, 골 4:12-13). 3) 시험(약 1:2-4, 벧전 1:6-7). 4) 고난(요 15:2, 고후

22) A. Skevington Wood, op. cit., p. 58. William Barclay, *The Letters to the Galatians and Ephesians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서기산 역, 기독교문사, 1972, p. 234.
23) William Barclay, op. cit., p. 234.

1:4-5, 빌 3:10, 벧전 5:10). 5) 사랑(엡 3:17-19, 4:15-16, 5:1-2, 요일 4:17), 6) 교제(롬 1:11-12, 16:3-16, 21-23, 고전 12:18-27, 엡 4:16). 이들 요소들 중에 시험과 고난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주어지는 것인 반면, 말씀과 기도는 교회사역자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주된 도구들이며, 사랑과 교제는 교회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공유해야 할 도구이다.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목사-교사들은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행 6:4).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골 1:28)라고 언급한대로 여기에 사역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골로새교회의 신실한 사역자였던 에바브라와 같이 항상 애써 기도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있게 설 수 있게 되도록 해야 한다(골 4:12). 존 맥아더는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 가장 성경적이고 효과적인 교회조직들 조차도 계속적으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사역자들의 신실한 사역이 없이는 교회 구성원들의 영적 성숙을 가져올 수 없다. 행정과 구조는 그 자체의 역할이 있지만 영적 교회성장의 핵심과는 거리가 멀다. 교회의 가장 큰 필요는 조직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항상 영적 성숙이었다. 리더십, 조직 그리고 경영에 관한 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 때때로 그러하듯이 복음 증거가 희극화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그의 백성들은 양육되어지지 못한다. 종교적인 엔터테인먼트는 영적 성숙에서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 성숙에 이르지 못한다. 그것은 자아로부터 나오며 자아만을 높일 따름이다.[24]

24) John F. MacArthur, op. cit., p. 154.

그는 말씀사역자의 기도와 말씀 연구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와 가르침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교사는 수많은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행정하는 일이 아무리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로 인하여 방해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다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또 다시금 예루살렘의 사도들처럼, 공궤를 일삼으면서 동시에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신실할 수가 없는 것이다(행 6:2,4). 교회의 영적 침체와 목회자의 탈진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은 목회자가 여러 활동들과 프로그램들에 사로잡혀서 기도와 말씀을 위해 거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아무리 성공적인 프로그램들이라고 할지라도 만일에 그것들이 육적으로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보다 인간의 만족을 위해 이루어진다면, 실패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파괴적인 것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순종의 부족이지 프로그램들이나 방법들의 부족 때문이 아니다(호 4:6).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는 것은 약한 프로그램들 때문이 아니라 약한 가르침 때문이다."[25]

에드 스태저(Ed Stetzer)와 마이크 도슨(Mike Dodson)은 미국에서 정체내지 퇴보 상태에 있었던 교회들 가운데 다시 부흥한 324교회들에 관한 공동연구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 연구와 설교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추가로 할애할 계획을 세웠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시간이 모자라고 책임량이 늘었지만 다시 부흥한 교회의 목회자들은 여전히 설교 준비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다. 이는 많은 책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겼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러한 교회들의 중요한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26]

---

25) Ibid.

26) Ed Stetzer and Mike Dodson, *Comeback Churches (다시 부흥한 324 교회 성장 리포트)*, 김광석 역, 요단, 2008, pp. 64-65.

이처럼, 교회의 목회자의 첫 번째 관심은 빈 자리가 아니라 채워져 있는 자리들이 되어져야 한다. "영적 성장은 항상 새로운 그 무엇을 배우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성장은 우리가 이미 들었지만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 진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27] 사도 베드로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벧후 1:12-13)라고 기록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은 거듭 가르쳐져야하고 들을 수 있어야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교회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진리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주님의 제자들로 구비시키고 온전케 하는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 관하여 제임스 슬랙(James B. Slack)은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다:

> 교회가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제자훈련이 필요하다. ... 제자훈련은 복음전도의 시녀이다. 제자훈련으로부터 분리된 복음전도는 그 깊이가 얕고 전혀 효과적이지도 않다. 또 복음전도가 빠진 제자훈련은 그 자체로 고립될 수밖에 없고 열매맺지 못하고 형식에 얽매인 교회를 만들어 낸다. 결국 이러한 교회는 주변의 잃어버린 세계와 전혀 접촉점을 찾지 못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그 공동체 속으로 끌어당기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다. 계속해서 확장되는 제자훈련은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며 숫자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여기에서의

27) John F. MacArthur, op. cit., p. 154.

> 중요한 관건은 교회의 제자훈련의 모판에서 가능성있는 지도자를 발탁해 내는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지침에 의하면 훈련된 성도라고 하는 성숙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교회는 지도력의 책임을 맡기지 않는 것이다(딤후 2:1,2).[28]

3.2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함

주님의 교회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두 번째 단계는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관련된 봉사이다. 광의적으로 볼 때, 말씀 사역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역으로 봉사의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말씀 사역외의 일반적인 봉사의 일들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수행해야 하는 주된 사역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29]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

28) John Mark Terry, Ebbie Smith and Justice Anderson (ed), *Missiology: An Introduction to the Foundations, History, and Strategies of World Mission,* (Nashville, Tenn.: Brodaman & Holman Publishers, 1998), p. 509.

29) 본문 12절의 3가지 사역들에 대한 명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헬라어 원문에서 3개의 전치사구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3개의 전치사구들은 (1) 성도를 온전케 하며 (전치사 pros 사용), (2)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전치사 eis 사용), (3)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하심이라(전치사 eis 사용)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3개의 전치사구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성경학자들 사이에 2가지 견해로 나누어지고 있다.

첫 번째 견해는 본문 12절에 나타나는 3개의 전치사구들은 서로 동격이고, 11절에 묘사되고 있는 말씀사역과 관련된 5종류의 사역자들이 해야 하는 사역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로마 카톨릭 학자들과 고교회지도자들(the High Church leaders)에 의해 주장되어지고 있으며, John Muddiman, Margaret Y. MacDonald, Andrew T. Lincoln, Rudolf Schnackenburg 등이 지지하고 있다.

두 번째 견해는 구문론적으로 3 전치사구들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첫 번째 전치사구의 전치사는 pros인 반면, 두 번째, 세 번째 전치사구들의 전치사는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는 그저 모든 구성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각자가 받은 은사를 따라 각자가 봉사할 영역을 철저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존 스토트(John Stott)가 적절히 언급했듯이, "신약성경이 말하는 목사는 욕심에 찬 나머지 모든 사역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는 평신도의 주도권을 모든 성공적으로 억누르는 자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은사를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활용하도록 돕고 격려하는 자이다. ... 그러므로 목사는 모든 사역을 자기 혼자 독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분배해야 한다."[30]

실제로, "어떤 목사나 혹은 다수의 목회자들조차도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재능있고 은사가 많고 헌신된 목사일찌라도 그가 사역하도록 부름받은 곳에서 해야 할 일들은 그의 시간과 능력으로서는

---

eis로 변경되어 있으며, 첫 번째 전치사구의 전치사 pros의 목적어는 관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 두 번째 세 번째 전치사구들의 전치사 eis의 목적어들은 관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첫 번째 전치사구의 구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문맥상으로 4장 7-16절은 교회의 통일성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Ernest Best는 만일에 3개의 전치사구들이 동동하다면 보다 일반적인 표현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가 가장 먼저 표기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머지 두 전치사구들인 "성도를 온전케 하며"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의 순서로 기록되어졌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전치사구는 첫 번째 전치사구에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11절의 5 종류의 말씀 사역자들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도록 성도들을 온전케하는 사역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개신교 여러 교단들에 의해 주장되어지고 있으며, Harold W. Hoehner, Ernest Best, Thomas R. Yoder Neufeld, Peter T. O'brien, W. Hall Harris III, Gordon Fee, F.F. Bruce, William Barclay, Clinton E. Arnold, Frank Thielman, Lynn H. Cohick, Francis Foulkes 등이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30) John R. W. Stott, op. cit., p. 167.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넘쳐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의 그의 목적은 목회자가 그 모든 필요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구성원들을 구비시키는 것이다(16절이 이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다). 명백히 지도자들이 봉사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중의 다수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기본 계획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므로 구비되어진 성도들이 서로를 효과적으로 섬기도록 하는 것이다(고전 15:58, 벧전 2:5,9, 4:10-11, 살후 3:11)."[31]

리전트 신학교의 영성 신학 명예 교수이며, '목회자의 목회자'로 알려지고 있는 유진 피터슨(Eugene H. Peterson) 목사는 자신의 목회사역 25년 동안에 교회 위원회의 회의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이로 인해서 교인들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의 위신이 더욱 세워지며, 목회자가 평신도들을 신뢰하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 되므로 이것을 교인들이 오히려 더 좋아 할 뿐만 아니라, 교회사역이 더욱 활성화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목회자가 교회의 모든 일을 담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평신도들이 교회의 실제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인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목회자에게 주어진 직무는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것으로 이 일을 원활히 이루어내어야 함을 역설한바 있다.[32]

미국의 드루대학교 신학부의 교수였던 토마스 C. 오덴(Thomas C. Oden)은 그가 쓴 "목회신학"에서 "목사는 몸 자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하지

31) John F. MacArthur, op. cit., p. 155.

32) 유진 피터슨(Eugene H. Peterson), *하나님의 신비에 눈뜨는 영성(Subversive Spirituality)*, 차성구 역, 좋은 씨앗, 2003, pp. 356, 357, 361.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목사의 일차적 업무는 평신도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몸 자체를 무장시키는 것이다. 목사가 전체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요 자만이다. ...목사는 다른 사람들이 수행할 수 있는 일반 교역의 일을 결코 행하지 말고 도리어 교회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이제까지 소홀히 하던 봉사를 할 수 있게 인내로 격려하라. 교인들은 흔히 안수받은 목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에 봉사하는 일을 더 갈망하고 있으며 또한 부름에 응할 자세가 더 잘 갖추어져 있다"라고 적절히 조언하고 있다.[33] 브라이언 채플(Bryan Chapell) 역시 "우리 [목회자]의 직무는 봉사의 사역과 교회를 세우는 것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구비시키는 것이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 만일에 당신이 그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죽을 것이고 사역 역시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34]

이와 같이,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신실할 때 교회의 구성원들은 적절히 구비되어질 것이고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동기부여가 되어질 것이다. 적절히 구비되어진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사역자들 즉 장로들과 집사들과 교사들을 일으켜서 효과적으로 일하게 하실 것이다. 영적인 봉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이다. 단순히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 레온 모리스(Leon Morris)의 언급대로

---

33) Thomas C. Oden, *Pastoral Theology: Essentials of Ministry*,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1983), pp. 156-157.

34) Bryan Chapell, op. cit., p. 195. "교회 역사학자들은 영국의 존 웨슬리가 가져온 부흥의 원동력이 목회사역에 평신도를 조직적, 지속적으로 활용한 데 있었다고 평가한다. .. 그는 자신이 목회하는 반세기 동안 모두 63명의 평신도 설교자를 훈련시켰고, 그 중 40%가 그가 죽을 때까지 그와 동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경철, *교회, 하나님의 비밀*, 생명의 말씀사, 2008, p. 30.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사역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 사역을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유급 사역자들에게 국한해서는 안 된다. 사역은 전 교회의 기능이다."[35]

3.3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

주님의 교회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세 번째 단계는 교회의 세워짐이다. 그리스도께서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신 목적대로 교회 구성원들을 구비시킴으로써 그들이 받은바 은사를 따라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

본문에서 "세운다"는 단어는 건물의 건축을 의미하지만 생명이 없는 구조물이 아니라 신자들로 이루어지는 살아있고 성장해 가고 있는 건축을 의미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바는 교회의 영적인 양육과 개발을 말하고 있다. 몸된 교회는 전도를 통하여 외적으로 세워지지만 본문에서의 강조점은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열매맺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양육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내적으로 세워지는 것에 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이 과정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행 20: 32). 교회의 성숙은 성경의 거룩한 계시에 대한 배움과 순종에 직결되어 있다. 새로 태어난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함과 같이 신자들은 말씀의 영적 공급을 사모해야 한다(벧전 2:2)."[36]

---

35) Leon Morris, *Expository Reflections on the Letter to the Ephesian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4), p. 127.

이와 같이, 교회의 말씀사역자들이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 구성원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구비시키는데 사역의 초점을 맞추어 나가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자라가게 되어진다. 린 코힉(Lynn H. Cohick)이 적절히 언급했듯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선물에 관한 바울의 메시지는 성도들이 사역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잘 준비시키기 위하여 [말씀]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다. 각 그룹[말씀사역자들과 성도들]의 목표는 보다 강하고, 보다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다."[37] 이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지체된 구성원 각자가 온전하여야 하며 계속해서 자라가야만 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4. 교회성장의 목표(The Goals of Church Growth) (엡 4:13-15)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중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즉

---

36) John F. MacArthur, op. cit., p. 156. 클라인 스노드그래서(Klyne Snodgrass)는 본문의 12절의 "세운다(building up)"는 것은 교회의 내적인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불신자들을 접촉하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Ephesians:*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Zondervan, 1996), p. 205. 레슬리 미톤(C. Leslie Mitton)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새신자들을 교회생활에 조화롭게 통합되도록 하고, 그들을 훈련시켜 교회의 생명과 다른 구성원들에게 기여할 수 있게 하고, 몸 안에서의 평화의 유지와 여러 지체들 간의 즐거운 협력에 대한 격려와 몸을 약하게 할 수 있는 경쟁, 소외, 분열의 방지를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다. *Ephesians*,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73), p. 152.

37) Lynn H. Cohick, *Ephesians*, A New Covenant Commentary, (Eugene, Oregon: Cascade Books, 2010), p. 111.

교회의 영적 통일성을 보존하는 것과 교회의 영적 성숙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영적 통일성의 보존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되는 것으로 성취되어지며, 영적 성숙의 증진은 교회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으로 달성되어진다. 주경신학자 박윤선 목사는 본문 13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의 목표를 보여준다. .. 위의 두 가지는 참된 교회의 목표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38] 존 맥아더 역시 "이중 궁극적인 목표(a two-fold ultimate objective)"라고 언급하고 있다.[39]

4.1 영적 통일성의 보존(Preservation of Spiritual Unity)

(1) 믿음의 통일성(Unity of the Faith)

교회성장의 목표는 믿음의 통일성과 더불어 시작된다. 엡 4장 5절이나 유 3절과 마찬가지로 본 절에서의 믿음은 개개인의 신자가 가지는 신뢰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진리의 주요부분 즉 기독교교리를 가리킨다.[40] 이 믿음의 통일성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존 맥아더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고린도 교회가 분명히 보여주듯이 교회 안에서의 불일치는 교리적인 무지와 영적인 미성숙에서 나온다. 교회 안의 구성원들이 적절히 가르침을 받게 되고, 봉사의 일을 신실하게 하게 되므로 몸된 교회가

38) 박윤선, *성경주석: 바울서신*, 영음사, 1985, pp. 159-160.
39) John F. MacArthur, op. cit., p. 156.
40) Walter L. Liefeld, *Ephesians,* The IVP New Testament Commentary Series, (Downers Grove, Illinois: IVP, 1997), p. 108.

영적 성숙 가운데서 세워져 나가게 될 때 믿음의 통일성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교제 안에서의 하나 됨은 공통적으로 믿은 진리의 기초위에 세워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고린도교회의 분열에 대한 해결책은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이해와 견해를 견지하므로 동일한 진리들을 말하는 것이었다(고전 1:10). 하나님의 진리는 그 자체가 분열되거나 나누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열되거나 나누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그 만큼 떨어져 있고, 바른 지식과 이해의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성경적으로 구비되어져 있고, 신실하게 봉사하고 있으며,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는 믿음의 통일성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 어떤 다른 통일성은 단지 인간적인 수준 위에 머무는 것이며 믿음의 통일성과는 동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갈등 속에 머물게 되어질 것이다. 교리적인 순결로부터 떠나게 될 때 교회 안에 통일성은 존재할 수 없게 되어진다.[41]

(2) 지식의 통일성(Unity of the Knowledge)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적 통일성을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의 통일성이 요구되어진다. "사도 바울은 구원 지식(salvation knowledge)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오한 지식(deep knowledge) 즉, 옳고 정확한 충만한 지식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 지식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연구와 순종으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한 지식이다."[42]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James Montgomery Boice)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은 매일의 삶 속에서 제자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41) John F. MacArthur, op. cit., pp. 156-157.
42) Ibid., p. 157.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지식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43] 프랭크 틸만(Frank Thielman)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으로 말하고 있다.[44]

바울은 사도로서 여러 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인 사역을 하는 가운데 투옥까지 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예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빌 3:8-12).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도록 기도하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1:17, 3:18-19)고 간구하였다. 따라서, 이 지식은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다. ... 그것은 주님을 직접적으로 알고 주님과 개인적인 친교를 갖는다는 것, ...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우리의 생명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충만함을 끌어내고

43) James Montgomery Boice, *Ephesians(에베소서)*, Voll. II, 김덕천 역, 비전북 출판사, 2001, p. 70.
44) Frank Thielman, *Ephesian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0), p. 281.

그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45] 한 걸음 더 나아가, 존 맥아더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깊은 지식 안에서 자라감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대하기까지 완성되지 않는 평생의 과정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바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요 10:27)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는 앎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양들의 정체성을 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을 친밀하게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양들이 또한 그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는 방식이다."[46] 그러므로 본문에서의 지식은 단순한 지적인 이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깊고 생명력 넘치는 친밀함과 경험으로 얻어지는 앎을 의미한다(골 1:9-10, 2:2).

주경신학자 렌스키(R.C.H. Lenski)는 참된 지식은 믿음의 한 부분이며 믿음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믿음과 지식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믿음이 성경을 읽을 때 불신앙이 결코 발견하지 못하는 지식의 보화를 발견하게 되며, 믿음이 고백과 삶에 의해 행사되어질 때 그것은 그 자체의 경험에 의해서 불신앙이 알지 못하는 구원하는 진리에 관한 지식을 더욱 더 발견하게 된다."[47]

그러나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지식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나가는데 큰 방해가 되어진다. 따라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 됨은 성숙한 교회의

---

45) D.M. Lloyd-Jones, *Christian Unity: An Exposition of Ephesians 4:1 to 16,*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0), pp. 218-220.

46) John F. MacArthur, op. cit., p. 157.

47) R.C.H. Lenski, *The Interpretation of St. Paul's Epistles to the Galatians to the Ephesians and to the Philippians*, (Minneapolis, Minnesota: Augsburg Publishing House, 1937), p. 534.

특징으로서 교회로서의 기능과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 됨을 위하여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4.2 영적 성숙의 증진(Promotion of Spiritual Maturity)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두 번째 목표는 영적 성숙의 증진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속한 수준의 분량에 이르는 성장에 이르는 것이다. 본문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온전한 사람"은 완전히 성장하거나 성숙한 사람을 가리키는데,[48] 이는 신자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의미하는 용어이다.[49] "온전한 사람"이 단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신자들의 통일된 전체로서의 교회"(the church as a unified whole)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적 성숙의 한 측면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50] 그러나 14절에서 영적 미성숙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린아이[들]"라는 단어는 복수 형태인데 이는 연합되지

48) Harold W. Hoehner, op. cit., p. 554.

49) Frank Thielman, op. cit.,, p. 281. D.M. Lloyd-Jones, op. cit., p. 210. 본문에 "온전한"(teleios)이라는 단어는 마 5:48, 19:21, 롬 12:2, 고전 2:6, 13:10, 14:20, 빌 3:15, 골 1:28, 4:12, 히 5:14, 약 1:4, 3:2, 요일 4:18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50) Clinton E. Arnold, *Ephesians*,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2010), p. 265.

못한 개인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장의 정도"[51]를 뜻하는 것으로 그 의미는 "이루어져야 할 완전한 영적 성숙"(Bruce, Hoehner), "그리스도를 닮음"(Montgomery, Arnold), "그리스도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선물과 은혜를 온전히 소유함"(Foulkes),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Thielman)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런데 이 "성숙은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몸 안에서 개인의 영적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52]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성장하시고 완전하시고 성숙한 사람의 유일한 기준이신 예수님의 인격의 특성들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롬 8:29, 고후 3:18, 요일 3:2). 그 이유는 범죄 타락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100%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교회 안에 충만해질 때에 인간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 속에 있는 교회는 세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제 세계 속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몸의 충만이기 때문이다(엡 1:23)."[53] 존 맥아더는 영적 성숙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드러내고 반사해야만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행하시는대로 자기도 행할찌니라'는 말씀대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요1서 2:6, 골 4:12).

---

51) F. F. Bruce, op. cit., p. 350.
52) Harold W. Hoehner, op. cit., p. 558.
53) John F. MacArthur, op. cit., p. 157.

>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완전하고도 계속적인 교제와 순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셨다. 우리 주님처럼 사는 것은 기도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으로부터 흘러나온다. ... 몸된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와의 보다 깊은 교제 가운데서 자라가게 될 때, 그의 성령을 통한 성화의 과정은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켜 영광의 한 차원에서 다음 차원으로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한다. 경건한 삶의 모든 다른 측면뿐만 아니라 영적 성숙의 동인(agent) 역시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를 떠나서는 가장 진실된 기도라고 할지라도 효과가 없으며(롬 8:26), 하나님 자신의 말씀조차도 아무런 능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진다(요 14:26, 16:13-14, 요1서 2:20).[54]

교회가 추구해야 할 영적 성숙은 이생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완전히 획득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롬 8:23),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세상에 도덕적인 탁월함(moral excellence)을 드러내는 성숙의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전 10:31, 고후 5:9, 살전 4:1, 벧전 2:9).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이었듯이, 오늘날의 말씀 사역자들의 목표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골 1:28-29, 빌 3:14-16).

54) Ibid., pp. 157-158.

5. 교회성장의 결과(The Results of Church Growth) (엡 4:14-15)[55]

5.1 믿음(건전한 교리)에 굳게 서게 됨

그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게 되어지므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질 때 주어지는 첫 번째 결과는 교회 구성원들이 믿음에 견고히 서게 되어진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군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교회 사역자인 디모데를 파송하는 주된 임무가 교회의 구성원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격려하므로 신앙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함인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역의 결과로 살전 3장 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는 언급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적절히 구비되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궤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요동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교리적인 가르침에 굳게 서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다.

"궤술(kybeia)"이란 전문적인 노름꾼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편을 속이는 교묘한 수법을 쓰거나 조작된 주사위 게임을 지칭하는 용어이다.[56] 따라서

---

55) 박윤선 목사는 본문 14절과 15절은 "교회가 잘 건설된 결과를 보여 준다"라고 말하면서, 14절과 15절의 두 가지 내용을 교회성장의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op. cit., p. 160.
56) Walter L. Liefeld, op. cit., p. 109.

이 용어는 어떤 종류의 부정직한 속임수를 의미한다. “유혹(panurgia)”(눅 20:23, 고전 3:19, 고후 4:2, 11:3)이란 “거짓교사들이 미성숙한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위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는 간교함과 파렴치함이다.”[57] “간사(methodeia)”는 신약에서 오직 두 번, 즉 본문에서와 엡 6장 11절에서 [마귀의] “궤계”로 나타나는 단어인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방법, 전략 혹은 계획”을 의미한다.[58]

이처럼,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짓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속임수로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집요하게 노리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영적으로 구비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새로운 종교적 유행이나 성경의 새로운 해석에 빠져드는 끊임없는 위험 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영적 어린아이였음을 언급하고 있다(고전 3:1, 14:20). 그들은 유행하는 사상들의 파도에 여기저기로 휩쓸리며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된 교훈들의 모든 바람에 의해 요동하는 자들이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의 진리에 온전히 닻을 내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약성경은 항상 현존하는 이 무서운 위험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차 있다(마 7:15, 24:23-26, 행 20:30-31, 롬 16:17-18, 고후 11:3-4, 갈 1:6-7, 3:1, 빌 3:2, 골 2:4-8, 살후 2:9-11, 딤전 4:1, 딤후 2:15-18, 3:6-9, 4:3, 히 13:9, 벧후 2:1-3, 요1서 2:19,26, 유 3-4, 12-13, 16-19).

57) Andrew T. Lincoln, op. cit.,, p. 258.
58) Harold W. Hoehner, op. cit., p. 563.

특별히 미성숙한 그리스도인[59]은 속기 쉬운데, 오늘날의 교회에 이런 부류의 미성숙한 구성원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건전한 기독교 교육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세력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그들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으며 여기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앤드류 링컨(Andrew T. Lincoln)은 "신자들 편에서 미성숙은 때가 되면 없어지게 될 중립적인 상태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간사한 사람들과 그 유혹의 힘에 의해 사람들이 조종당하게끔 두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태다. 그러나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신자들이 거짓된 가르침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한 그들을 미혹으로 끝날 불안정성에서부터 진리의 안정성으로 인도하기 위해 바로 이러한 정확한 상황을 위해서 목사들과 교사들이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60]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런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유에 대하여 존 맥아더(John F. MacArthur)는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 이러한 영적 곤경의 이유는 발견하기 어렵지 않다. 수많은 복음전도

---

59) 프랭크 틸만(Frank Thielman)은 미성숙은 무지(ignorance)와 속기쉬움(gullibility)과 개인주의(individualism)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op. cit., p. 283. 무지는 호 4:6, 마 22:29, 막 12:24, 요 20:9, 고전 13:11, 엡 4:17-18, 5:17, 살전 4:13-14, 히 5:12-14, 유 10, 속기쉬움은 마 24:11, 막 13:22, 고전 3:18, 15:33, 고후 2:11, 11:14-15, 엡 5:6, 골 2:4, 딤전 4:1, 딤후 3:13, 딛 3:3, 약 1:22, 유 12, 개인주의는 고전 3:1-4, 고후 5:15, 빌 2:21, 4:2, 딤후 3:2, 유 19을 각각 참고하라.

60) Andrew T. Lincoln, op. cit., p. 259.

> 자들이 값싼 복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많은 목회자들이 거의 내용없는 메시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건전한 교리 혹은 신실한 순종 위에 세워지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교리적 결속(믿음의 통일성)이 거의 없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영적 성숙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어진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그들의 자녀들에 의해 주도되어지는 것과 같이,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영적으로 미성숙한 교회의 구성원들(요1서 2:13-14)이 그들의 견해를 모든 교훈의 풍조로 바꾸고 계속적으로 인간의 술책과 사탄의 궤계와 간사한 유혹에 먹이가 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61]

5.2 진정한 사랑의 증거(Authentic Loving Testimony)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게 될 때 나타나지는 두 번째 결과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의 모든 측면에 적용되어지는 것으로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참된 것을 하여”라고 번역된 단어는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또는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동사가 사용된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서는 “복음진리를 전파하는 것”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본문에서도 “진리를 전파하는 것”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본문 15절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언급에 대하여, 마틴 로이드 존스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으라”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이

61) John F. MacArthur, op. cit., p. 159.

모든 내용은 우리가 진리를 위태롭게 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계몽시켜 주기 위하여 사랑의 방법으로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 ... 사랑은 모든 일에 미소를 지으며, 관대함을 보여주고, 우리가 모두 하나이기만 하면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62]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언급은 "자비로운 말들로 믿음을 선포하고 변호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말들에 부합되게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63]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은 건전한 교리와 영적 성숙으로 전적으로 구비되어진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미성숙한 신자들에게는 바른 교리는 차가운 정통에 지나지 않고, 사랑은 감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직 성숙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여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사랑과 능력 가운데서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계속적인 겸손과 은혜를 가지고 있다. 진리와 사랑이 결합되어질 때 능력있는 사역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64]

이 점에 대하여, 존 스토트(John R. W. Stott)는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진리란 사랑에 의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어지는 법이며, 사랑이란 진리에 의하여 강하게 되지 않으면 약해지는 법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모두 함께 붙잡으라고 권한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충만한 신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성령은 그 자신이 '진리의 영'이시며 동시에 그의 첫째가는 열매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온전히 성숙한

62) D.M. Lloyd-Jones, op. cit., pp. 241, 252-253..
63) A. Skevington Wood, op. cit., p. 61.
64) John F. MacArthur, op. cit., p. 160.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에 이르는 길은 오직 성령충만을 받는 길이다."[65]

이와 같이,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된 가르침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된 세상에 대하여 참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구비되어진 자들이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증거 하였듯이,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나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어질 수 있다(살전 2:7-12, 고후 12:15, 빌 2:17, 골 1:24-29). 따라서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복음화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엡 3:17-19, 4:2, 5:1-2), 이런 사랑의 희생정신으로 복음을 말하는 진실된 삶이 전도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어짐을 사도 바울의 사역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진 진정한 증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돕는다(엡 4:15절 하반절). 따라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실행하는 것은 성장의 방편인 동시에 결과이다."[66] "범사에"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가리키고 있다.[67] 즉, 그리스인들에게는 사랑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지 아니해도 되는 그 어떤 삶의 영역도 존재하지 않음을 말해 주고 있다.

---

65) John R. W. Stott, op. cit., p. 172.

66) Klyne Snodgrass, op. cit., p. 207.

67) Clinton E. Arnold, op. cit., p. 269. 앤드류 링컨(Andrew T. Lincoln)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찌라"는 언급은 "하나됨과 지식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in unity, in knowledge, and in speaking the truth in love)에서 적절한 성장과 진보가 일어나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op. cit., p. 261), 마틴 로이드 존스(D.M. Lloyd-Jones)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성과 이해력과 감정과 감수성과 의지(순종)의 측면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op. cit., pp. 254-257).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각 신자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진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며, 모든 기능을 위한 능력의 원천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사람의 두뇌가 육체적인 삶의 통제 중심인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인 교회의 삶과 능력의 원천이심을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자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통제하시는 능력에 전적으로 따라야 하고 주님의 모든 생각과 의지의 표현에 순종해야 함을 의미한다."[68] 이러한 삶은 사도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빌 1:21),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 2:20)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삶이다.

6. 교회성장의 원천과 환경(The Source and Atmosphere of Church Growth)(엡 4:16)

에베소서 4장 16절의 내용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범사에 머리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때, 그의 생명, 힘, 활력과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아 전 몸이 자라가게 되어짐을 가르쳐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성장의 목표(the goal)이자 원천(the source)이 되어진다는 것이다.[69]

"연락하고 상합하여"라는 단어들은 현재 수동태 분사로서 "합께 밀접하게 결합되면서" "함께 짜맞추어지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동의

68) John F. MacArthur, op. cit., p. 160.
69) Arthur G. Patzia, *Ephesians, Colossians, Philemon,*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Peabody,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1984), p. 246.

어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과정이 현재 진행 중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70] 이 두 단어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몸 안에서 밀접하고 치밀한 상호관계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성도들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라는 부분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라는 부분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두 구절의 각각은 몸의 기능에 관한 진리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는 그 몸의 연합을 유지시켜 나가고 있으며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입음으로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각 마디들은 성령의 영적 공급과 은사들이 한 지체로부터 다른 지체로 전달되는 접촉점들로 함께 이어지거나 결합되는 부분들로서 성장을 가져오는 사역의 흐름을 제공하는 것이다."[71]

각 지체의 적절한 역할은 교회 각 구성원의 은사사용의 중요성을 암시해 주고 있다(엡 4:7, 고전 12:12-27). "교회의 성장은 교묘한 방법들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밀접한 접촉 속에서 각 자의 영적 은사를 온전히 사용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72] 따라서 각 지체는 자신이 받은 것을 전체 몸의 유익과 성장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 존 맥아더는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

70) Andrew T. Lincoln, op. cit., p. 262. Leon Morris, op. cit., p. 131.

71) John F. MacArthur, op. cit., p. 161. Andrew T. Lincoln은 본문의 각 마디를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또한 성숙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는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op. cit., 263. 그러나 Clinton E. Arnold는 교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은유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op. cit., p. 271). 이 견해에 동조하는 주경신학자들은 Harold W. Hoehner(op. cit., p. 572), Ernest Best(p. 411-412), Frank Thielman(p. 287), John Calvin(p. 185)등이 있다.

72) John F. MacArthur, op. cit., p. 161.

> 그리스도는 교회의 생명과 능력과 성장의 원천으로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접촉하는 마디들 속에서 각 지체의 은사들과 상호사역을 통하여 성장을 촉진시키신다. 교회 안에서의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지체된 그리스도인들 개개인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 흘러내린다. 따라서 주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영적 사역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주의 백성들이 서로에게 친밀하지 못하고 각자의 은사들에 신실하지 못한 곳에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어떤 창의력이나 재주나 영리함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충실한 순종을 찾으신다. 육적인 몸은 각 지체가 다를 지체들과 연합하여 머리의 지시에 반응할 때에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어진다.[73]

R. C. 스프롤(R. C. Sproul)이 언급했듯이, "[몸의] 모든 부분들은 몸의 건강과 완전한 기능을 위하여 지극히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성령에 의해 은사를 부여받고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는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74]

이처럼, 몸의 최상의 건강상태는 그 몸의 각 부분이 서로 적절히 기능을 수행해 나갈 때 유지되어진다. 그러나 여러 부분들 중 한 부분에 결함이 생기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게 될 때 고통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 질병에 시달리게 되며 건강을 상실하게 되어진다. 따라서 몸의 각 지체는 머리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분량대로 역할을 해야만 한다(7절, 16절). 이와 같이 지체들이 그들 자신의 기능을 다하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인

---

73) Ibid.

74) R. C. Sproul, *The Purpose of God: An Exposition of Ephesians*, (Scotland: Christian Focus Publications, 1994), p. 108.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고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다. "이 구절에서 핵심 아이디어는 몸의 모든 지체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게 온전히 붙어있으면서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므로 거짓되고 파괴적인 것에 의해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75] 이 구절에 대하여, 딕 루카스(Dick Lucas)는 "골로새 교회 회중을 위한 '하나님의 성장' 원리는 이와 같이 가장 단순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을 것이다. 모든 양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며, 이것이 모든 근육과 힘줄에게 분배되고 사용된다. 지역 교회는 각 교회 지체가 머리를 붙들 때만 자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지체는 그리스도로부터 그것이 전체에 공급하는 힘과 생명을 받는다"라고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76]

이러한 진리들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결론적인 교훈은 각 지체된 그리스도인은 그가 접촉하는 각 지체와 긴밀한 접촉 가운데서 신실하게 그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밀접하게 붙어 있게 될 때에, 그 지체들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사랑 안에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위해 흘러내리게 되어진다는 것이다.[77] 즉 그리스도께서 몸의 각 지체에게 부여해 주신 은사들을 온전히 활용하므로 교회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롤드 헤너(Harold W. Hoehner)는 "그리스도가 성장을 가져오는 능력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어진다"고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78] 따라서 몸된

75) John F. MacArthur, op. cit., p. 161.
76) Dick Lucas, *The Message of Colossians & Philemon (골로새서 빌레몬서 강해)*, 정옥배 역, IVP, 2008, p. 162.
77) John F. MacArthur, op. cit., p. 161.
78) Harold W. Hoehner, op. cit., p. 577.

교회의 지체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머리되신 그리스도에게 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과 생명과 성장에 필요한 영양물질이 각 지체들에게 흘러들어 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다.

본문 16절에서 "명사로 표현되고 있는 '자람'(본문과 골 2:19절에서만 사용됨)은 현재 중간태 동사와 연결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몸된 교회가 내재하는 힘을 통하여 그 자신의 성장을 이루게 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들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영적 성장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세워나가는 몸의 성장을 일으키는 내부의 활기찬 능력으로부터 온다."[79]

이 모든 것은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사랑은 교회의 지체들이 가진 은사들이 흘러내리는 통로이기에(고전 12:31), 이 사랑의 통로가 막혀있을 때 건강한 교회로서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잭 헤이포드(Jack W. Hayford)가 언급한대로 "사랑은 참된 성장을 입증하는 유일한 것이다."[80] 따라서 사랑이야말로 교회성장을 위한 절대 필요조건이 되어짐을 밝혀주고 있다.[81] 왜냐하면 "사랑이 성장이 일어나는 가장 전도성있는 환경"(Love is the most conductive atmosphere in which growth takes place)이기 때문이다.[82] 또한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목표일뿐만 아니라 "교회성장의 평가를 위한 궁극적인 기준이다."[83]

---

79) John F. MacArthur, op. cit., p. 162.

80) Jack W. Hayford and David P. Seemuth, *Ephesians & Colosians*, Spirit-Filled Life New Testament Commentary Series, (Nashville, Tenn.: Thomas Nelson, Inc., 2005), p. 84.

81) 에베소서에서는 서신의 분량에 비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음과 같이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이 1:4, 3:17, 4:2,15,16, 5:2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사랑"이라는 단어는 2:4, 3:18,19, 5:25,28,33, 6:23,24(2회)에 각각 나타나고 있다.

82) Clinton E. Arnold, op. it., p. 272.

83) Andrew T. Lincoln, op. cit., p. 264.

더 나아가,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을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는 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엡 4:2, 골 2:2, 3:14, 몬 1:7). 어네스트 베스트(Ernest Best)가 적절히 말했듯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함께 적응시키고 단결을 지속시키는 접합제(cement)이며, 모든 구성원들은 예외없이 이 사랑 안에서 해야 할 역할을 가지고 있다."[84] 그러므로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가 가족의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더욱 잘 자라나는 것과 같이 교회도 구성원들 간에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더욱 잘 자라나게 되어진다. 이와 같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세워져 나갈 때에 세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알아보게 될 것이고(요 13:34-35), 복음전도의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가 있게 될 것이며, 수적인 증가는 자연적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7. 결론(Conclusion)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고 하신 말씀 그대로 교회의 존재와 사역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설립자가 되신 주님의 계획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다. 이 주님께서 은혜의 선물로서 교회성장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바로 말씀 사역자들로서 오늘날의 복음전하는 자들과 목사-교사들임을 에베소서 4장은 밝혀주고 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주신 이 선물은 사역자 자신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어졌다는

84) Ernest Best, *Ephesians*,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Edinburgh: T&T Clark, 1998), p. 413.

사실은 사역자들이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겸손히 모범적이고 올바른 자세로 사역에 임하여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행 20:28-35, 살전 2:5-10, 딤전 3:1-7, 벧전 5:1-3).

또한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께서 몸된 교회에 주시는 은사들이 다양하지만 (고전 12:8-10, 28-30, 롬 12:6-8, 벧전 4:11),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으로 양육하거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역자(복음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장해 나가고,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로 전하고 먹이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 핵심 사역자들은 교회의 설립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로서 이들이 교회 구성원들을 온전케 하므로, 지체들로 부름받은 구성원들이 받은바 은사를 따라 봉사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게 되어지고, 그 결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 나가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성장에 있어서 주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함을 인식해야 하며, 이들이 주님의 계획대로 가장 중요한 사역 즉 교회 구성원들을 구비시켜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어져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러한 봉사의 사역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은사를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의 표식은 모든 구성원들이 받은 은사와 능력의 분량을 따라 능동적으로 사역에 참여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마케팅 이론의 영향으로 교회 구성원을 단순히 소비자 혹은 고객으로 대하고자 하는 사상은 지극히 위험스럽고 왜곡된 생각임을 밝혀주고 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대신하여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잘 하느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성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얼마나 잘 구비시켜 가고 있는가에 의해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85]

또한 에베소서 4장은 교회성장의 목표가 진리 안에서 교회의 영적 하나됨과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성원들의 영적 성장에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 목표가 성취되어질 때 그 결과로서 믿음에 견고히 서게 되어지고 사랑의 증거를 통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

85)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실천신학교수였던 제이 E. 아담스(Jay E. Adams)는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적인 패턴을 버리고 그들 자신의 인간적인 프로그램들로 대체하므로 현대교회가 무기력하게 되어졌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에베소서 4:11-12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잘못이거나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지도자의 기본 지침을 행하지 못함으로 오는 잘못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Shepherding God's Flock: Pastoral Leadership,* Vol. 3,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75, pp. 24,27. 아담스의 성경적인 사역의 패턴과 오늘날의 잘못된 사역의 패턴에 대한 도표와 설명은 위의 책 p. 28을 참고하라.

또한 아담스는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자 본연의 임무가 아닌 일들을 맡고 있다. 그들은 에베소서 4:11-12에서 분명히 말하는 그들의 기능을 무시하고서 설교자 본연의 임무 외에도 교인들이 해야 할 일들까지도 하려고 한다. ... 다른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 임무들을 목회자들이 가로채면 회중은 회중대로 쉽게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그로써 복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할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 목회자는 자신도 할 수 있고 교인 중 누가 할 수 있는 일은 직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율로 삼아야 한다. ... 목회자가 할 일은 각자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모든 교인들을 세우고 격려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본연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시간 계획표에서 빼버리면 연구와 설교준비를 위한 시간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Preaching with Purpose (설교의 시급한 과제)*, 이길상 역, 아가페 출판사, 1993, p. 101.

이런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교회의 구성원 각자가 충만하게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충만하게 성장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또한 교회를 떠나서는 개인의 온전한 성장도 일어날 수 없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왜냐하면 몸의 구성원으로서 각 지체는 서로에게 속하여 있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성장의 원천이자 원동력은 바로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교회 사역자들과 구성원들 모두는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하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계획대로의 교회성장이 이루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교회성장의 환경이 반드시 조성되어져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엡 3:18-19), 비로소 교회는 생기와 활력을 얻어서 이 사랑의 통로를 통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부여받은 은사가 막힘없이 흘러내림으로 몸된 교회는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면서 매력적인 모습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해 나가게 될 것이며 주님의 계획대로 교회로서의 기능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랑은 교회가 영적 통일성을 유지해 나가고, 모든 지체들이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가며, 진리를 선포하는 모든 과정에서 활력을 불어넣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에베소서가 보여주는 교회성장은 질적 성장의 결과로서 양적 성장이 주어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 사역자들은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이를 무시하고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교회 혹은 건강한 교회로서 성장해 갈 수 없음을 인식하여 무엇보다도 성도를 온전케 하는 질적 성장에 사역의 최우선 순위를 둘 수